

# 『赤壁歌』와 『三國演義』의 비교 연구

장 연 호\*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赤壁歌』와 『三國演義』의 藝術性 |
| II. 『三國演義』의 傳來와 韓國의 受容     | V. 맺음말                 |
| III. 『赤壁歌』와 『三國演義』의 內容의 特徵 |                        |

## I. 머리말

『赤壁歌』는 판소리 다섯마당에 속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赤壁歌』는 중국의 三大奇蹟의 하나인 『三國演義』중에서 가장 정채로운 적벽대전을 중심으로 대담하게 개작된 작품이다. 『赤壁歌』는 판소리화 되는 과정에서 『三國志演義』에 있는 내용을 변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三國志演義』에는 없는 사설을 삽입하여 새로운 작품질서를 이룩한 작품이다.<sup>1)</sup> 신제호본 『赤壁歌』는 『三國演義』의 주제를 살리는 한편 제 나름대로의 새로운 주제를 부각하였으며 특유한 변용양상을 보이면서 개작의 합리성과 자기만의 독특한 창작풍격을 보이고 있다.

\* 중국 연변대학교 사범학원 한어학과 전임강사

1) 김기형, 『赤壁歌의 歷史적 展開와 作品世界』,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論文, 1993년, p.1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三國演義』의 전래와 수용과정을 살펴보고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赤壁歌』와 『三國演義』의 내용 및 예술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赤壁歌』는 『三國演義』에서 무엇을 수용하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발전시켰으며 독특한 창작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赤壁歌』의 문학적 가치를 밝혀 보려고 한다.

『赤壁歌』사설은 신재효본을, 『三國演義』는 明清시대에 유포되었던 羅貫中撰, 毛宗崗評의 板本을 원본으로 택하였다.

## II. 『三國演義』의 傳來와 韓國的 受容

『三國演義』는 『水滸傳』과 『西遊記』와 함께 중국의 三大奇書로 불리운다. 『三國演義』는 근 100년에 걸쳐 중국의 魏, 蜀, 吳 三國간의 모순과 갈등을 다룬 역사소설이다. 『三國演義』에 이르러 正史는 작가의 가공과 허구를 거쳐 소설의 領地에 정착될 수 있었고 작가의 褒貶, 평론의 대상으로 될 수 있게 되었다. 거창한 사건 전개, 各樣各色的 인물등장, 군사적 책략, 흥미로운 이야기 줄거리 등으로 하여 東西古今에 애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胡適은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三國演義究竟是一部絕好的通俗歷史，在幾千年的通俗教育史上，從沒有一部書比得上他的魔力。<sup>2)</sup>

胡適은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三國演義』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通俗歷史”라고 하는 것은 『三國演義』의 史料적인 가치를 말해준다. 『三國演義』의 초기 板本에는 모두 “晉平陽侯陳壽史傳，後學羅本貫中編次”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羅貫中이 『三國演義』를 창작할 때에 陳壽의 『三國志』를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는 『三國演義』에 기본적인 史料를 제공한 셈이다. 그 외에도 『後漢書』, 『董卓傳』, 『劉表傳』, 『呂布傳』, 『孔融傳』, 『祢衡傳』, 『左慈傳』,

2) 羅貫中撰, 毛宗崗評, 『三國演義』引言, 三民書局印行.

『資治通鑑』, 『通鑑綱目』, 『搜神記』 등이 『三國志』에는 없는 내용들을 보충해 주면서 『三國演義』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sup>3)</sup>

三國이야기는 隋·唐시기에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유행되었었다. 南宋 朱熹의 『通鑑綱目』은 蜀漢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編年도 蜀漢을 따랐다. 이 책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尊劉貶曹”의 경향은 『三國演義』에 그대로 옮겨질 정도로 중요한 작용을 놀았다. 元朝에 이르러 至治年間(1321~1323)에 新安虞氏가 『全相三國志平話』를 간행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최초의 三國이야기집이다. 字數는 약 8만자이고 上, 中, 下 세권으로 되었으며 上欄과 下欄으로 나누고 上欄에는 그림을, 下欄에는 글을 실었다. 이렇게도 이 刊本の 最古本은 현재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본국에는 영인본만 남아 있다. 이 책은 문자가 拙劣하고 인명과 지명도 틀리는 곳이 많지만 『三國演義』의 탄생에 준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야기구성에서 平話의 영향을 기능할 수 있다.

『三國演義』의 최초의 版本은 明弘治甲寅年(1494년)에 仲春庸愚子가 序를 달고 孟夏修彝子가 引자를 쓴 『三國志通俗演義』이다. 책은 전부 24권으로 되어 있고 240편으로 이루어 졌으며 平話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뒤로 新刊本이 많아 졌는데 明代刊本만 하더라도 20여종이 된다. 그러나 내용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挿圖, 평론, 문자의 수정, 回目的 정리 등 면에서 달라진 면을 보여주고 있다. 책 이름도 『三國志傳』, 『三國志傳評林』, 『三國全傳』, 『三國英雄志傳』, 『三國志二十卷』 등 各樣各色이다. 지금까지 가장 유행되고 있는 책은 淸康熙年間에 毛綸, 毛宗崗父子가 修改, 潤色하고 評을 단 『三國演義』이다.

『三國演義』에 앞서 陳壽의 『三國志』가 일찍 한국에 傳來되었다. 李慶善 교수는 令狐德棻의 『周書』列傳과 李延壽의 『北史』列傳에서 『三國志』가 전래된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두 列傳의 高句麗條에는 “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라고 써여 있다. 이를 근거로 『三國志』의 傳來시기를 고구려로 본 것이다. 三國時代로부터 高麗初에 이르기까지 『三國志』의 傳來가 一般化되었을 것이니, 따라서 中國의 三國의 歷史의 事實에 대한 理解가 下代에 이를수록 더욱 普遍化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三國志』에 대한 理解는 小說로서의

3) 齊裕焜, 『明代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년, p.43 참조.

『三國志演義』가 傳來되고 또한 土着化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基盤이 되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sup>4)</sup>

한국 學界에서는 『朝鮮王朝實錄』에서 『三國演義』에 대한 傳來說의 근거를 찾고 있다.

上御夕講于文政殿 進講近思錄第二卷 奇大升進啓曰 頃日張弼武引見時 傳教內張飛一聲走萬軍之語 未見正史 聞三國志演義云 此書出來未久 小臣未見之 而或因朋輩間聞之 則甚多妄誕<sup>5)</sup>

이 實錄에 의하면 조선조 초기에 벌써 『三國演義』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류탁일교수는 문헌학의 각도에서 착안하여 『三國演義』는 중국 禮部에 속해있는 司禮監에서 간행한 官本으로서 중국에 간 朝鮮의 사신들에 의해 傳來되어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서 『三國演義』는 嘉靖壬午本이 간행된 1522년에서 宣祖 2년 어전에서 언급된 1569년 사이에 전래되었다고 추정한다. 그는 범위를 좁더 좁혀서 명종 연간(1545년-1567년)에 전래되었다고 짐작한다.<sup>6)</sup> 당시에 사대부층에서는 正史를 중히 여기고 소설은 “妄誕”이라고 보고 지배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보면서 反論을 주장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儒家載道思想의 통치를 받아온 중국의 전통적인 소설관념과 일치한다. 중국은 명나라시기에 文壇에서 소설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劉大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到了明朝, 這種觀念, 爲之一變. 如李卓吾, 袁中郎, 馮夢龍, 凌濛初之流, 一致贊美小說文章的优美, 同時并了解小說與群治的關係, 其感應效果之大, 遠過于『四書』, 『五經』, 所謂小說的文學價值與社會價值, 第一次在中國文壇爲人認識……這種透澈的對於小說的見解, 是到了明朝才有的.<sup>7)</sup>

중국 文壇의 이와 같은 소설관념의 변화가 朝鮮 사대부층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兩班官僚層의 熾烈한 反論에도 불구하고

4) 李慶善, 『三國志演義의 比較文學的研究』, 一志社, 1976년, p.113.

5) 『朝鮮王朝實錄』宣祖, 卷三.

6) 류탁일, 「15-6世紀 中國小說의 韓國傳入과 受容」, 『語文教育論集』10집, 참조.

7)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下卷, 百花文藝出版社, 1999년, p. 396.

演義小説은 下代에 이룰수록 더욱 널리 퍼져서 庶民層의 讀本界를 風靡하게 되었다.<sup>8)</sup> 『三國演義』는 일반서민은 물론이고 士人들에게도 인기소설이 되었으므로 번역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翻譯本이 널리 愛讀되는 가운데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나 重要人物을 中心으로 하여 派生된 小説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즉 『華容道實記』, 『赤壁大戰』, 『三國大戰』, 『山陽大戰』, 『趙子龍實記』, 『關雲長實記』, 『大膽姜維實記』, 『黃夫人傳』 등이다.<sup>9)</sup>

신재효는 『三國演義』가 風靡되던 시대에 산 사람으로서 『三國演義』를 당연히 접했을 것이고 또 그 매력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매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三國演義』에 始終 관통된 중국의 전통적 관념—“忠”, “孝”, “節”, “義”였을 것이다. 이점은 『赤壁歌』의 결말 부분을 읽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레설레관에 曹操와 諸將들이 다 살아 逃亡하니 關公의 높은 義氣千古에 뒤 當하리. 훗 사람 글을 지어 關公을 頌德하되 曹陽兵敗走華容 正與關公狹路逢 只爲當初恩義重하여 放開金鎖走蛟龍. 이러한 壯한 일을 史記로만 傳하오면 無識한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삼기로, 打승으로 만들어서 廣大와 歌客들이 風流座上 장 부르니 凜凜한 그 忠義가 萬古에 아니 씩올까 하노라.<sup>10)</sup>

신재효는 여기에서 關公이 曹操를 놓아준 것을 壯한 일로 보면서 關公의 義氣를 높이 稱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關公의 忠義를 문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打승으로 만들어 廣大와 歌客들이 부르도록 했다면서 『赤壁歌』의 창작동기까지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신재효는 『三國演義』의 국내적 受容과 더불어 그것을 자기의 창작의식속에 溶解시킴으로써 忠義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三國演義』와는 다른 시각으로 판소리의 특징을 살리면서 『赤壁歌』를 창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신재효가 왜 굳이 적벽대전을 소재로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赤壁大戰 部分이 民衆에 가장 인기가 있었고 또 익살과 재담으로 엮

8) 李慶善, 앞의 책, p. 122.

9) 李慶善, 앞의 책, p. 130.

10) 申在孝, 『판소리사설集』(全), 韓國古典文學大系 8, 敎文社, 1984, p. 529.

어서 판소리화 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三國演義』에서 가장 정채로운 부분이 바로 적벽대전이다.

『赤壁歌』라는 명칭은 1873년에서 1884년 사이에 저작된 신재효본의 표제로 처음 쓰인 것처럼 보인다.<sup>11)</sup> 신재효본의 『赤壁歌』는 판소리화 되는 과정에서 『三國演義』의 내용을 변용시켰으며 한국적 요소를 부가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작품세계를 펼쳐 보였다. 두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 Ⅲ. 『赤壁歌』와 『三國演義』의 內容的 特徵

『赤壁歌』와 『三國演義』를 1:1식으로 한조목 한조목비교해 보면 『赤壁歌』의 개작부분과 그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天下大勢 分久必合이요, 合久必分이 聖歎先生の 萬古 確論이라.<sup>12)</sup>

이것은 『赤壁歌』의 서두인데 『三國演義』의 서두를 그대로 본딴 것이며 “聖歎先生の 萬古確論이라”고 한 것을 보면 金聖歎에 대한 존경 및 찬탄과 더불어 “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을 진리로 받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慶善교수는 이 구절로부터 作者는 毛宗崗本의 「第一才子書」를 熟讀하고 『赤壁歌』를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재효가 『三國演義』에서 중점적으로 참고한 回目は 다음과 같다.

- 제 1회 宴桃園聚杰三結義 斬黃巾英雄首立功
- 제37회 司馬徽再薦名士 劉玄德三顧草廬
- 제38회 定三分隆中決策 戰長江孫氏報仇
- 제42회 張翼德大鬧長坂橋 劉豫州敗走漢津口
- 제43회 諸葛亮舌戰群儒 魯子敬力排衆議
- 제46회 用奇謀孔明借箭 獻密計黃蓋受刑

11) 姜漢永, “申在孝판소리 사설 解説”, 『申在孝판소리 사설集(全)』, 民衆書館, 1971년.

12) 신재효, 앞의 책, p. 449.

제48회 宴長江曹操賦詩 鎖戰船北軍用武

제49회 七星壇諸葛祭風 三江口周瑜縱火

제50회 諸葛亮智算華容 關云長義釋曹操

위에서 알 수 있듯이 『赤壁歌』는 『三國演義』의 9회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赤壁歌』의 첫부분에는 시대적 배경이 제시되는데 “漢靈帝建寧二年四月望日”로 두 작품이 다루는 시간적 배경이 똑 같고 사회배경도 天下人心이 분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赤壁歌』는 『三國演義』의 第一回에서 유비에 대한 소개와 桃園結義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第37回(司馬徽再薦名士 劉玄德三顧草廬)로 뛰어넘는 도약을 보인다. 長坂大戰은 “長坂에 大戰하고”란 한마디로 언급하고 話題를 적벽대전에 집중시키고 있다. 아래에 두 작품의 相異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 1. 주제적 측면에서 본 공통점

주제적 측면에서 보면, 두 작품이 다 작가의 주관적 창작의도에 의해 “尊劉貶曹”의 경향을 띠고 있다. “尊劉貶曹”는 두 작품에 일관된 가장 기본적인 思想線索이라고 할 수 있다. 毛宗崗은 삼국지를 읽는 방법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讀『三國志』者，當知有正統，閔運，僭國之別。正統者何？蜀漢是也。僭國者何？吳，魏是也。閔運者何？晉是也。魏之不得爲正統者，何也？論地則以中原爲主，論理則以劉氏爲主，論地不若論理。故以正統予魏者，司馬光『通鑑』之誤也。以正統予蜀者，柴陽『綱目』之所以爲正也。『綱目』于獻帝建安之末，大書后漢昭烈皇帝章武元年，而以吳，魏分注其下，蓋以蜀爲帝室之胄，在所當予；魏爲篡國之賊，在所當奪。<sup>13)</sup>

毛宗崗은 나관중처럼 正統을 蜀漢으로 본 것이다. 땅을 논하면 中原이 중심이 되고 理를 따지면 劉氏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땅보다도 理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魏를 正統으로 보는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비난하고 있

13) 毛宗崗, 『讀三國志法』, 『三國演義』會評本 上, 陳曦鐘 등 3인 輯校, 北京大學出版社, 1986년, p. 4.

다. 그러면서 蜀漢을 正統으로 보는 朱熹의 『通鑑綱目』을 바른 것이라고 했고 魏는 나라를 빼앗은 도적이므로 뒤엎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나관중의 “知正統必當扶, 竊位必當誅”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毛宗崗본을 읽었던 신재효가 蜀正統主張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신재효가 작품에서 “曹操는奸雄이라”, “曹操平生 먹은 마음 逆賊질뿐”이라고 한 것도 蜀正統思想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忠義사상을 體現하는 면에서도 두 작품이 같은 경향을 보인다. “忠”의 형상은 諸葛亮한테서 잘 표현되고 있다. 諸葛亮은 “忠”에 “才”를 겸비한 完美한 인물이다. 그는 劉備의 “三顧茅廬”에 보답하기 위해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南征北戰 하면서 일생을 蜀漢사업에 바친다. 庸愚자는 『三國志通俗演義序』에서 “孔明之忠, 昭如日月, 古今共仰之”라고 하면서 孔明의 “忠”에 대해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다. “義”의 형상은 關羽한테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關羽는 張飛와 함께 劉備와 결의 형제를 맺은 뒤, 두 마음을 가져 본적이 없었으며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劉備를 따랐다. 關羽는 또 華容道에서 曹操를 잡을 수 있었지만 옛 은혜를 생각하여 놓아 준다. 이에 대해 신재효는 “關公의 높은 義氣 千古에 누 當하리”라고 하면서 높이 칭송하고 있다. 孔子는 “君子義以爲上”이라 했고, 孟子도 “義, 人之正路也”라고 했다. 義를 중히 여김은 儒家의 기본적인 處世原則임을 알 수 있다.

## 2. 『赤壁歌』의 독자적인 양상

『赤壁歌』가 『三國演義』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軍士들을 정면 인물로 등장시킨 것이다. 최하층 軍士들을 曹操와 대립되게 등장시킴으로써 『三國演義』와는 다른 새로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三國演義』는 한 세기를 걸쳐 三國의 흥망성쇠를 다루면서 웅장한 전쟁 장면과 무수한 영웅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주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다. 하층 軍士들은 소외되었고 전쟁에서는 희생품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赤壁歌』에서는 최하층 軍士들에게 필을 돌려 그들의 존재를 쓰고 있으며 그들이 전쟁에서 겪는 고난과 역할 및 전쟁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한편 軍士들의 厭戰정서, 歸鄉정서,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심정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늙은 부모생각, 현숙한 아내생각, 귀여운 자식생각, 첫날밤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한 설움, 한몸같은 형제생각 등 “軍士설움타령”은 전쟁을 앞둔 軍士들의 공동된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쟁은 죽음을 의미한다. 전쟁에서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바로 하층 軍士들이다. 죽음을 앞두고 가족을 그리는 것은 인간의 情理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曹操는 연회를 베풀고 승리를 장담하지만 軍士들은 오히려 曹操를 저주하면서 서러운 신세를 하소연한다.

無狀타 曹丞相은 軍法도 모르던가. 無兄弟 獨身 나를 歸養하라 아니 하고  
千里戰場 데려다가 不孝子가 되게 하네. 애고애고 설운지고.<sup>14)</sup>

이 대목에서 軍士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자로 만드는 무정한 曹操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니고 단순한 厭戰情緒의 발로가 아니며 고향으로 안보내주는 曹操에 대한 불만만이 아니다. 조조의 군졸들이 전쟁을 염오하고 전공을 세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爲國者의 노래에 대해 여러 군사들이 조롱하며 매도하는 데는 단순한 염전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조조가 복종할 수 없는 지배자이고, 그가 벌이는 전쟁이 수궁할 수 없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5)</sup>

兵驕者는 敗란 말을 너희 아니 들었느냐. 우리의 丞相님이 眼下에 無人하여 남은 것이 驕뿐이라 丁寧 이 싸움에 敗하고만 말 터이니 우리 身勢 어찌 되리.<sup>16)</sup>

軍士들은 이러한 말들에서 曹操의 독재와 교만을 폭로하고 있다. 軍士들은 曹操와 땅과 하늘 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조조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아 낼 수 있었으며 또 전쟁에서 꽤하리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최하층 군사들의 예리한 판단력을 말해주는 한편, 그들이 홀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軍士들의 입을 통해 曹操가 敗하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

14) 신재효, 앞의 책, p. 463.

15) 崔正洛, 『赤壁歌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p. 37.

16) 신재효, 앞의 책, p. 471.

고 있다.

『赤壁歌』에서 軍士들은 의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인 曹操와 대담히 맞서고 있으며 풍자까지 하면서 감히 曹操를 비웃고 심지어 질책까지 하고 있다. 曹操가 우산을 퍼들라고 하니 “丞相의 하는 분부 어찌 그리 무식하오.”라고 하는가하면, 노구 걸고 밥을 지으라고 하니 “걸 노구 어디 있고 밥할 糧食 어디 있소.”라고 하고, 심지어 “糧食간데 모르시오. 聚鐵山, 赤壁江에 山같이 쌓인 糧草 丞相의 방정으로 불 속에 넣었으니 저리 시장하거든 거기를 찾아가서 튀밥 주어 잡수시오.”, “丞相은 영웅이라 八十三萬 죽었으니 敗男이라 하오리까.”라고 하면서 패배의 책임을 직접 曹操에게 돌리고 있다. 軍士들과 曹操의 정면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장수법과 풍자적인 필치로 軍士들을 감히 曹操와 맞서게 하고 있으며 정면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赤壁歌』에서 軍士들이 曹操와는 대립되는 인물로 생생하게 형상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赤壁歌』에서 군사들의 죽은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도 『三國演義』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三國演義』에서는 火攻으로 하여 배가 불에 타는 장면과 曹操가 전쟁에서 패해 도망가는 이야기만 묘사되고 있을뿐 軍士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火趁風威, 風助火勢, 船如箭發, 燭燭障天. 二十只火船, 撞入水寨, 曹寨中船只一時盡着, 又被鐵環鎖住, 無處逃避. 隔江炮響, 四下火船齊到, 但見三江面上, 火逐風飛, 一派通紅, 漫天做地.<sup>17)</sup>

이와 같이 화염이 충천하고 배가 모조리 타버리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軍士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赤壁歌』에서는 軍士들의 죽음이 너무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曹操의 百萬 大兵 各색으로 다 죽는다. 불속에 타서 죽고, 물속에 빠져 죽고, 銃 맞아 죽고, 살맞아 죽고, 칼에 죽고, 槍에 죽고, 밧혀 죽고, 눌러 죽

17) 羅貫中, 『三國演義』, 上, 會評本, 北京大學出版社, p. 620.

고, 얼어서 죽고, 자빠져 죽고, 기막혀 죽고, 숨막혀 죽고, 창터져 죽고, 등터져 죽고, 팔 부러져 죽고, 다리 부러져 죽고, 피 토하여 죽고, 똥 싸고 죽고, 웃다 죽고, 뛰다 죽고, 소리 지르다 죽고, 달아나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壯談하다 죽고, 浮氣쓰다 죽고, 이 갈며 죽고, 주먹 쥐고 죽고, 죽어보느라 죽고, 才談으로 죽고, 하 서러워 죽고, 동부 따라 죽고, 수없이 죽은 것이 江물이 피가 되어 赤壁江이 赤水江, 軍裝服色 다 타진다.<sup>18)</sup>

이러한 묘사를 통해 軍士들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으며 적벽전쟁 당시의 참혹상을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이런 묘사는 또한 작품의 표현적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三國演義』에서 무시되었던 軍士들이 『赤壁歌』에서 창조된 동인은 무엇일까? 주관적으로는 작가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재효는 분명히 獨正統사상을 받아들이고 “尊劉貶曹”의 선입견이 선 다음에 『赤壁歌』를 창작하였다. 曹操를 惡人으로 낙인찍고 이 인물을 비속화하는 역할은 軍士들이 맡는 것이 가장 적절했던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식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부패한 지배층에 대해 감히 맞서 싸우는 비판적인 태도를 반영하기도 한다. 객관적으로는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민중의 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회적 경제적 변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문학에서는 당시의 양반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등 주제와 문체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민중의 의식이 급성장한 것이다. 서종문교수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주체적 세력인 민중의 의식성장이 문화적인 변동을 일으킬 만한 힘으로 커졌다는 점에서 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관소리로 널리 불렸던 『적벽가』에 나타난 변용양상을 대체적으로 따져봐도 그 점은 확인된다. 원본 『삼국지연의』에서 무시된 군사들이 국내본 『적벽가』 계열에 창조되고 있음은 민중의식의 성장과 무관할 수 없다. 더구나, 군사들은 불의한 지배층으로 등장하는 조조와 대립적으로 형상화된다는 사실은 그 증거가 될 수 있다.<sup>19)</sup>

18) 신재효, 앞의 책, p. 489.

19) 서종문, 「적벽가의 작가의식」, 『신재효연구』(서종문, 정병현 편), 태학사, 1997년, p. 295.

신재효는 이러한 민중의식의 성장을 감안하고 그것을 자기의 창작의식속에 融解시킴으로써 『赤壁歌』에서 다른 한 주제 즉 가난한 평민층의 안절된 생활에 대한 추구와 최하층 인간들의 “惡”에 대한 멸시와 증오, 부패한 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정신을 부각할 수 있게된 것이다.

#### IV. 『赤壁歌』와 『三國演義』의 藝術性

##### 1. 작품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비교

『三國演義』는 『三國志』와 『三國志平話』 등을 골격으로 史料와 민간전설을 수렴한 기초위에서 蜀漢을 중심으로하고, 蜀漢과 曹魏의 투쟁을 主線으로 하면서 무려 한 세기의 風雲變化를 쓰고 있다. 『三國演義』는 역사소설로서 서사 구조거나 기교 등 면에서 史畧의 영향을 받았다. 사실 중국의 史畧은 매우 강한 문학성을 띠고 있다. 『史記』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毛宗崗은 『三國演義』를 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三國』敍事之佳，直与『史記』彷彿，而其敍事之難則有倍難于『史記』者。『史記』各國分書，各人分載，于是有本紀，世家，列傳之別。今『三國』則不然，殆合本紀，世家，列傳而總成一篇。分別文短而易工，合則文長而難好也。<sup>20)</sup>

여기에서 毛宗崗은 『三國』이 敍事が 잘 되기는 『史記』와 彷彿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毛宗崗이 『史記』의 문학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敍事에서 힘들기는 『三國』이 『史記』보다 배가 어렵다고 하였다. 『史記』는 나라와 인물들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本紀, 世家, 列傳의 구별이 생기지만 『三國』은 이 세가지를 한편에 묶었기 때문에 구별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나누면 문장이 짧게되고 쉽게 서술할 수 있지만 종합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서술하기도 어려워 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론은 문학성이 강한 史料를 가치표준으로 했음이 確然하다. 나관중이 『三國演義』를 창작할때에 최초의

20) 毛宗崗, 「讀三國志法」, 앞의 책, p. 18.

장편 역사소설인 만큼 “歷史化”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三國演義』는 역사에 기재된 인물들을 그대로 등장시키면서 인물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劉備, 關羽, 張飛, 諸葛亮, 曹操, 孫權, 周瑜 등 많은 인물들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三國演義』의 구성은 웅대하면서도 엄밀하다고 할 수 있다. 『三國演義』의 作者는 蜀漢을 중심으로 하고 삼국의 모순투쟁을 주요한 선색으로 하여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곡절 많고 변화 많은 이야기로 엮어 나가면서 비교적 완전한 예술구성을 완성하였다.<sup>21)</sup>

『赤壁歌』는 『三國演義』의 작품구조를 赤壁之戰을 중심축으로 재편하였으며 정채로운 장면은 창조성이 부가되면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 적벽대전 전후의 중요사건은 빠짐없이 서술되어 있어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徐鐘文은 『赤壁歌』의 구조를 견고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구조가 견고하다는 것은, 같은 계열의 타본에서는 원본인 『三國志演義』의 줄거리가 누락되거나 誤記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서, 신재효 본 『赤壁歌』에서는 赤壁大戰 전후의 중요사건은 빠짐없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sup>22)</sup>

짧은 편폭에 적벽대전의 중요사건이 빠짐없이 서술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기나름대로의 작품구조를 구축했는가 하는 것이다. 『三國演義』가 인물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비해 『赤壁歌』는 사건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三國演義』가 큰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는데 비해 『赤壁歌』는 작은 인물, 그것도 최하층 軍士들을 주축으로 이야기를 엮고 있다. 신재효의 『판소리사설집』(奎)에 보면 『赤壁歌』가 40쪽에 걸쳐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60%이상이 군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것이 바로 『赤壁歌』의 특색이다. 『三國演義』에서는 홀시되었던 하층 軍士들을 등장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작품세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재효가 판소리사설의 작품구조적 특징에 맞게 사건을 엮고 합리하게 재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21) 김병수, 『중국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82년, p. 134.

22) 徐鐘文, 『판소리辭說研究』, 螢雪出版社, 1984, p. 209.

## 2. 인물형상 創造에서의 비교

『三國演義』의 등장인물의 주요한 특징은 거의 대부분 어떤 도덕품질의 典範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劉備의 仁, 關羽의 義, 諸葛亮의 忠, 曹操의 奸, 張飛의 勇 등인데 각자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關羽의 義를 예로 들어 보면, “身在曹營心在漢”에서 돌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華容道에서 曹操를 풀어주는 장면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는데 있어서도 성격의 복잡성을 회피하면서 온정되고 불변적이다. 曹操를 예로 들어보면, 그의 奸惡은 소시적부터 66세에 죽을때까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인물형상을 일생을 거쳐 類型化하는 수법에 맞춘 것이 틀림없다.

『三國演義』에서는 조조가 奸雄으로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 丞相으로서의 풍도와 한 시대의 영웅적 면모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 華容道에서 關羽를 만나 생명이 경각에 처한 형편에서도 曹操는 혼비백산한 軍士들과는 달리 “既到此處, 只得決一死戰”라고 하면서 비장한 결심을 다지는 한편 程昱의 간언을 듣고 말을 달려 關羽의 앞에 썩 나서면서 “將軍別來無恙”하고 인사를 하는가 하면 “曹操兵敗勢危, 到此無路, 望將軍以昔日之情爲重”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말한다.

『赤壁歌』는 인물형상창조에서 『三國演義』의 수법을 받아 들이는 한편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曹操와 같은 인물을 심하게 변용시키고 있다. 신재효는 關羽의 형상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그의 義를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기도 한다. 결말부분에 “關公의 높은 義氣 千古에 누 님하리”라고 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曹操형상은 『赤壁歌』에서 여지없이 이그러 진다. 적벽대전이전의 曹操형상은 丞相으로서의 풍도와 영웅본색을 어지간이 갖추고 있지만, 적벽대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심하게 파괴된다.

황개의 추격에 놀라 丞相의 체면을 돌볼 겨를이 없이 흥포를 벗고 도망하다가 “鬚髯 긴 놈 曹操니라”는 소리에 수염마저 썩 베는 曹操, 張飛에게 쫓겨 입었던 갑옷을 벗어 던지고 “自分必死 逃亡”하는 曹操, 남은 軍士 바로 수습 못하고 우산떠라, 밭지어라 하다가 軍士들한테 편잔만 당하는 曹操, 숲속의 장승을 보고 關羽와 張飛인 줄로 착각하고 혼비백산하는 曹操, 關羽를 만나자

程昱에게 “애야, 나는 배아프니 내 투구 네가 쓰고, 내 甲옷 네가 입고 나 代로 가 빌어 보라”<sup>23)</sup>고 요구하는 비굴하고 이기적인 曹操, 曹操의 형상은 이그러질대로 이그러지고 있다. 曹操는 한 시대의 영웅이기는커녕 보통 사람만도 못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역사적 영웅으로서의 존재적 가치는 완전히 소멸되고 추악한 인간, 바보같은 조롱거리로 戲畫化되어 있다.<sup>24)</sup>

曹操는 완전히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최하층 軍士마저도 감히 조소하는 인물로 변한다. 한 火兵이 曹操를 정면상대하고 주저없이 “吳·漢 양국 사람들은 그러한 將帥 말고 五六歲 아이들도 모두 다 하는 말이 曹操 그놈 죽일놈, 曹操 그놈 죽일놈 하니, 行勢를 어찌하여 人心 그리 못 얻었소. 지금 살아계실 적에 남의 辱이 저러할제, 喪事나신 千萬年에 그 시비가 어떻겠소.”라고 하는가 하면, “丞相은 英雄이라 八十萬 죽었으니 敗男이라 하오리까.”라고 하면서 曹操를 정면으로 구박하기도 한다. 죽은 軍士까지도 그 원통함을 못이겨 冤鳥로 변해 曹操를 꾸짖는다. 또한 의인수법으로 장승까지 동원시켜 曹操를 꾸짖게 한다. 曹操는 결국은 세상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되고만 것이다.

曹操와 程昱의 관계를 변형시켜 농음으로써 曹操의 처지를 더욱 처량하게 더욱 값없게 만들었다. 『三國演義』에서는 程昱이 曹操의 謀士로서 曹操에게 지혜와 계략을 남김없이 바치면서 충성을 다한다. 그러나 『赤壁歌』에서는 曹操와의 상하관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마음대로 조롱하고 마음대로 거역한다. 曹操가 말에서 떨어지자 부축은커녕 재주가 남다른 詭術이라고 비꼬고 있으며 曹操가 우산을 올리라고 하자 무식하다고 편잔을 주기도 하고, 曹操가 劉備, 關羽, 諸葛亮, 張飛 등을 근본 없는 졸놈이라고 경멸하자 “世上말 알 수 없소. 사람마다 하는 말이 丞相님 奸邪하여 남의 姓字 가지고서 行勢를 하신다고, 根本은 夏侯氏니 데 畝者놈에 收養들어 趨勢를 하시느라 曹氏라 한답디다.”<sup>25)</sup>라고 하면서 성씨를 고쳤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작품에서 曹操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일그러지고 골계화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흐름

23) 신재효, 앞의 책, p. 523.

24) 崔正洛, 앞의 책, p. 35.

25) 신재효, 앞의 책, p. 521.

이라고 할 수 있다. 程昱은 房子型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曹操의 謀士인 程昱은 國內本 『赤壁歌』 및 『華容道』系列에서는 房子型 人物로 변모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曹操의 性格 變化와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다.<sup>26)</sup> 사실상에 있어서 程昱은 방자보다도 더 심한 인물이다. 방자는 일개 도련님의 하인에 불과하지만 程昱은 천하를 호령하는 丞相의 謀士다. 丞相의 謀士가 감히 丞相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曹操를 모욕하고, 풍자하고, 조소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赤壁歌』의 작가는 바로 이와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을 과장된 수법으로 작품에 옮김으로서 풍자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성격적인 재창조는 國內적 變容의 動因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한 申在孝의 작가 의식에 의한 것이다.<sup>27)</sup> 신재효는 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三國志에 있는 史蹟 曹操가 關公 보고 말 타고 빌었으되 비는 뿐 아니기로 不得已 이 大文을 世上이 고쳤었다.<sup>28)</sup>

『三國演義』의 曹操형상은 신재효의 창작의도와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하여 不得已 고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赤壁歌』는 작중인물의 성격과 그 역할의 변화를 통해 曹操를 변화의 폭이 엄청난 인물로 만들었다.

### 3. 작품의 골계적 성격의 비교

『三國演義』는 역사소설인 만큼 골계성이 결핍되어 있다. 오히려 崇高하고 悲壯한 특징을 띠고 있다. 하지만 『赤壁歌』는 골계적 성격이 짙게 표현된다. 골계적 성격을 떠나서 『赤壁歌』의 진정한 가치를 운운하기 어려운 정도로 골계성이 강하다.

적벽가의 내용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은 골계적 요소이다.<sup>29)</sup> 『赤壁歌』의 골계적 성격은 매우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골계는 이야

26) 權斗煥, 徐鍾文, 「房子型 人物考—판소리系 小說을 中心으로」, 『韓國小說文學의 探究』, 韓國古典文學研究會 編, 一潮閣, 1978년, p.13.

27) 徐鍾文, 앞의 책, p. 209.

28) 신재효, 앞의 책, p. 525.

29) 崔正洛, 앞의 책, p. 59.

기속에 함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언어표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赤壁歌』의 경우는 주로 대화를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군사점교의 일대목을 예로 들어보면,

어린 作隊案을 程昱이 퍼 들고 次例로 부르는데, 「左部 右司 前哨 一旗 一隊長 공중쇠.」旗總이 옆에 서서 대답하여「物故요.」二隊長 육두쇠.」物故요.」三隊長 물거쇠.」物故요.」四隊長 허망쇠.」物故소리 장 하기가 旗總도 無顏하여 대답뽀을 고쳐서 「죽었소.」五隊長 맹랑쇠.」그놈도 그랬소.」狼狽手 팔랑쇠.」「아까 하던 말이오.」어따 이놈아, 쇠字 行列은 다 죽었던 말이 나.」赤壁江 그 불속에 무슨 쇠가 안 녹겠소.」<sup>30)</sup>

이 대목은 정체로운 대목이다. 여기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주된 요인은 언어적 기교에 있다. “공중쇠”, “육두쇠”, “물거쇠”, “허망쇠”, “물고요”, “그 놈도 그랬소”, “아까 하던 말이오”, “그 불속에 무슨 쇠가 안녹겠소” 등 표현에서 골계가 성립된다. 점교할 때에 旗總이 “죽었다”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한말을 반복하기가 무안하여 “그놈도 그랬소”, “아까 하던 말이오”라고 대답하는 데서 웃음이 만나올 수가 없다. 다음으로 “육두쇠”, “물거쇠” 등은 사람이름인데 이 이름자에서 “쇠”자를 빼어 불길에 녹는다고 하였으니 세찬 불길속에서 살아 남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골계적으로 적절히 표현하였다.

『赤壁歌』의 골계성은 주로 曹操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赤壁歌』의 골계의 대부분이 曹操의 어리석고 불합리한 말과 행동을 소재로 이루어진다. 丞相이라면 丞相의 體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曹操는 體統이 완전히 일그러져 골계화 되어 버렸다. 曹操는 이미 아무런 권위도 남아있지않은 골계적 인물로 형상화된 것이다.

#### 4. 작품의 민족적 풍격의 비교

어떠한 작품이든지 다 자기의 민족적 특색을 띠고 있다. 인물형상을 부각 하는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자국의 인물이요, 그 인물의 몸에는 민족적인 요소

30) 신재효, 앞의 책, p. 499.

가 다분이 스며들어 있다. 『三國演義』의 인물들은 각자 개성을 가진 중국의 인물들이다. 『赤壁歌』의 등장인물들은 역시 그 인물이지만 『三國演義』를 떠나서 한국의 『赤壁歌』로 볼 경우에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曹操와 程昱의 몸에서 민족적 풍격의 일면을 볼 수 있다. 『赤壁歌』에서 程昱은 “房子型”의 인물로 등장한다. 曹操와의 관계는 丞相과 謀士의 관계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없이 아무말이나 주고 받을 수 있는 “兩班”과 “下人”의 관계다.

程昱: 丞相목 좀 내 놓으시오. 根本 頭風 過하시니 좋다는 片箭으로 싹박  
뚱겨 피 빼시면 頭風이 나오리다.

曹操: 아서라, 그러다가 숟가락을 아주 놓으면 天子 노릇 누가 할꼬<sup>31)</sup>

이 대화는 曹操가 도망가는 도중에 정욱의 誹笑를 받으면서 나눈 대화다. 일개 謀士가 丞相보고 “片箭으로 싹박 뚱겨 피 빼라”고 하면 당장에서 목이 날아날 것이다. 그러나 마치도 방자와 이도령이 대화를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적 특색의 제일요소는 민족언어라고 할 수 있다. 齊裕焜은 『三國演義』의 언어적 특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在語言上，既繼承了史書的簡潔明快，鏗永傳神，又吸收了民間文學的粗獷潑辣，通俗生動，形成了以文言文爲主，文言與語體相結合的“文不甚深，言不甚俗”的獨特的語言風格。<sup>32)</sup>

여기서 『三國演義』의 언어는 史書와 民間文學의 풍격을 받아들여 자기의 독특한 언어풍격을 이루었음을 밝히고 있다.

『赤壁歌』는 순 한글본으로된 것도 있고 국한문체혼용본도 있다. 자기의 문자로 창작된 자체가 본 민족의 특색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程昱과 曹操가 나눈 대화에서 “싹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단어로써 “한국맛”을 짙게 해준다. 그리고 曹操가 “숟가락을 놓으면”라고 했는데 숟가락은 한국에서 흔히 쓰는 식용도구이다. 중국사람들은 식용도구하

31) 신재효, 앞의 책, p.493.

32) 齊裕焜, 『明代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년, p. 49.

먼 먼저 생각하는 것이 快子(적가락)다. 음식문화의 서로 다른 풍격이 이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도 표현된다. 그 외에도 曹操가 關羽를 만나 애걸하는 장면에서 “그물에 걸린 새를 풀어 놓아 살리시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網開一面”이라고 하여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풀어 놓아 살리라는 뜻으로 쓰인다. 결국은 빠져 나갈 길을 퇴워 준다는 뜻인데 표현이 각자 다르다. 『赤壁歌』에서는 또 “공중쇠”, “육두쇠”, “무거쇠”, “허망쇠”, “맹랑쇠”, “팔랑쇠” 등 인명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들은 순수한 한국 이름이다. 재미있는 대목이 또 하나 있다. 曹操는 전쟁을 앞두고 연회를 베푼다. 軍士들이 취하여 여러 가지 행각들을 벌이는데 그중 한명이 諺文冊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 軍士들이 諺文冊을 보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 이야기책을 본다고 함으로써 민족적인 분위기를 造成하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 『赤壁歌』의 짙은 민족적 풍격을 엿볼 수 있다.

## V. 맺음말

『三國演義』는 조선조초기에 벌써 한국에 유입되었고 양반관료층의 反論에도 불구하고 널리 애독되었다. 신재효는 『三國演義』가 風靡되던 시대에 살면서 이 長篇巨作을 열심히 읽었다. 작품속에 관통된 중국의 전통적 도덕관념—忠, 孝, 節, 義는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특히 關公을 통해서 반영된 義氣는 『赤壁歌』를 창작한 동인으로 되기도 하였다.

『赤壁歌』는 『三國演義』의 蜀正統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尊劉貶曹”의 경향은 오히려 『三國演義』보다도 더 심하다. 『赤壁歌』는 『三國演義』의 정채로운 대목인 적벽대전을 기본 소재로 삼고 그것을 해체해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작품질서를 구축하였다. 『赤壁歌』에서는 軍士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창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三國演義』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최하층 軍士들이 최고위의 曹操와 맞대결하면서 曹操를 마음대로 嘲笑하고, 질책까지하는 것은 慚에 대한 멸시와 증오를 표현한 것이며, 권세에

굴하지 않고 부패한 권위와 대담히 맞서 정의를 주장하는 하층 인간들의 미덕을 노래한 것으로서 『赤壁歌』의 가치가 표출될과 동시에 새로운 주제가 부각되었다. 軍士들이 정면인물로 등장하게 된것은 주관적으로는 작가의 창작 의식이 작용을 했고 객관적으로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민중의식이 활력소로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술성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三國演義』는 인물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지만 『赤壁歌』는 사건중심으로 이야기가 엮어지고 『三國演義』는 큰 인물들을 주축으로 사건을 서술하는데 비해, 『赤壁歌』는 작은 인물, 그것도 최하층 인물을 주축으로 사건을 서술한다. 전자는 인물형상부각에서 획일적으로 별 변화가 없는데 비해, 후자는 변화가 심하다. 특히 曹操와 같은 인물은 『赤壁歌』에서 완전히 골계적인 인간으로 전락된다. 程昱은 房子型의 인물로 묘사됨으로 하여 원작에서의 曹操와의 관계가 파괴된다. 軍士들의 반발에다 程昱까지 가세하니 至高無上의 권력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허수아비로 되고만다. 의인수법과 골계성은 『赤壁歌』의 주요한 창작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赤壁歌』는 『三國演義』를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 민족적인 특색을 짙게 표현하고 있다. 『赤壁歌』의 문학적 가치는 바로 이러한 민족적 특색을 살린데 있으며, 심층적인 면에서는 下層 인간들이 부패한 권위와 대담히 맞서 굴함없이 내결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미덕을 부각한데 있다.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Jukbyeokga(赤壁歌) and Samkukchi(三國演義)

Zhang Yan-Ga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tail and of Jukbyeokga(赤壁歌) and Samkukchi(三國演義) in the point of the comparative literature, ant to ascertain the literary value of Jukbyeokga(赤壁歌) through this approach.

In Jukbyeokga(赤壁歌), the thought of legitimacy of Chok(蜀) was accepted intactly and the tendency of “尊劉貶曹” is more excessive than that of Samkukchi(三國演義). In Jukbyeokga(赤壁歌), the soldiers are created as a clearly living figures but this description isn't shown in any part of Samkukchi(三國演義); moreover, it is an expression of contempt and abhorrence against an evil that lowest soldiers confront the highest person, chocho(曹操), laugh at him, and even scold him; an expression of the virtue of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who fight in the cause of justice against the corrupted authorities without yielding to them. From these features the value of Jukbyeokga(赤壁歌) is expressed and a new subject is embossed. Soldiers appears as a main characters. It is not only because subjectively there was the creative consciousness of the author but also because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consciousness of people were a vital power.

In artistry, the construction of Samkukchi(三國演義) centers around characters but that of Jukbyeokga(赤壁歌) centers around events; in Samkukchi(三國演義) events are described related to important characters

but in Jukbyeokga(赤壁歌) unimportant characters,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in the former, there is little change in a uniform character description but in the latter, there is a varied change. Especially, chocho(曹操), in Jukbyeokga(赤壁歌), becomes a be comes a person of humor and saftre person. As Jungwook(程昱) is described as person like the type of Bangza(房子), his connections with chocho(曹操) is broken off. The resistance of soldiers and the support of Jungwook(程昱) makes the strongest authority powerless and useless. The technique of a righteous person and humor and saftre is an important creative feature of Jukbyeokga(赤壁歌).

Jukbyeokga(赤壁歌) is based on Samkukchi(三國演義), but it's got out of the conventionality and strongly expressed the national features. The literary value of Jukbyeokga(赤壁歌) is in the fact that the very national feature is emerged and that in the deep aspect, the virtue of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is embossed, who fought against the corrupted authority in the cause of justice.